

전국의 명창·고수들 구례로 몰려온다



7~9일 사흘간 구례실내체육관 일원 동편제소리축제 판굿·팜페라 등 공연...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도 열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종합국악축제인 '구례동편제소리축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구례동편제소리축제는 동편제 판소리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대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소리꾼들의 등용문인 제20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도 같은 기간에 개최한다.

축제 첫째 날인 7일에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 소리꾼의 공연인 '동편제 젊은 소리'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구례전산농악 길놀이 및 판굿', '국악인추모제', 창극 '어사또 춘향도 상봉' 등을 진

행한다.

개막공연인 '동편제 山의소리, 江의소리'에는 전남도립국악단과 명창 염경애, 팜페라 테너 임형주가 함께하는 수준 높은 공연이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리며,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예선과 '호남여성농악 판굿'이 펼쳐진다. 이어 '동편제 명인명창전'에는 이태백, 이난초, 윤진철, 임현빈, 조선하 등 이 시대 최고 명인·명창이 나와 판소리, 가야금,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오후 2시부터는 부대행사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동편제소리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편제판소리전수관, 사찰, 동편제 명인명창전을 관람하며,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우리 소리의 우수함을 알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기회와 장을 제공한다.

9일에는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본선과 시상식이 열린다.

구례군 관계자는 3일 "송우룡과 송만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 등 당대 최고의 명창을 배출한 동편제의 보향에서 판소리의 중흥을 이끌어가길 새로운 주인공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웅장하고 호방한 동편제 판소리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2016 구례동편제소리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guryesori.gurye.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김영란법 시행 맞춰 경찰·군인·교수 등과 함께

박병종 고흥군수 '감찰론' 공동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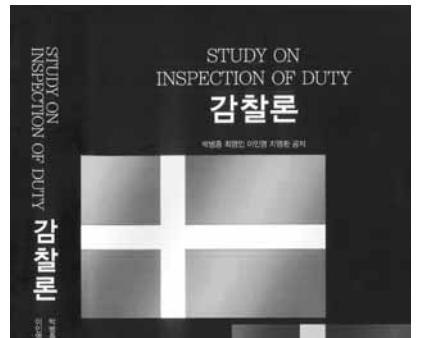
박병종 고흥군수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경찰, 군인, 교수 등 공동저자들과 함께 3년간 집필한 '감찰론'을 출간해 화제다.

감찰론의 공동저자는 박병종 고흥군수를 비롯한 지영환 박사(경찰관), 이인영 공군 예비역 대령,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등 4명이다.

이 책자는 역사적 감찰제도와 공직윤리의 방향에 대해 공동저자들이 각각 관련 자료를 정리해 놓은 논문을 토대로 총 700쪽으로 구성돼 집필 발간됐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발간사에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기업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고, 변화의 중심에 선 공직사회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기 혁신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떳떳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책 출간 축하의 뜻을 전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감찰 없이 공직자가 청렴하면 최상이다. 그러나 현실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감찰은 필요하지만 공직자의 자제(自戒)가 필수적"이라면서 "이 책 '감찰론'이 공공 부문의 책임자



나 종사자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감찰론에서 '고흥군 3대 군정혁신 운동' 추진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새로운 방향 제시와 활동사례, '발포만 호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 일화비' 건립, 국민 분양으로 조성된 '청렴박석 광장'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소신도 함께 소개했다.

한편 이번 '감찰론'은 고려·조선시대 및 현대의 감찰법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해 구성원 개인의 안정적인 삶과 조직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침서란 평을 받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고흥군 을 공모사업 예산 확보 700억 돌파

민선 4·5기 포함 267건 선정

고흥군이 올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2016년도 공모사업에서 굵직한 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전체 공모사업비 707억원(국·도비 396억)을 확보했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업무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으로 응모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고흥군의 설명이다.

고흥군은 최근 환경부에서 주관한 고흥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362억

원이 최종 확정된 것을 비롯,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산어촌 개발사업 5건 111억원, 수출전망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73억원, 고흥만 꽃구름길 조성 30억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30억원 등이 선정됐다. 여기에 현재 심사중인 사업도 있는 만큼 공모사업 선정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민선 4·5기를 포함해 총 267건 국·도비 2312억원을 확보해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성과는 중앙부처 홈페이지로 수시 검색과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전문가 평가 적극 대응 등 공모사업 유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고흥군 이달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

고흥군은 "이달부터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현수막 게시는 인식 부족과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

기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제작 시 광고업체가 현수막 우측 하단에 표시기간과 옥외광고 사업등록번호, 광고업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제도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보성 농특산물 브랜드
'미미보' 상표등록 완료

보성군은 3일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미미보(味美寶)의 BI (Brand Identity) 4종 16건에 대한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미보는 보성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개발됐다. 청정 보성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우수 농특산물에 한해 보성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브랜드다.

보성군은 시각적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BI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해 이번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미미보 BI는 보성의 맛과 멋, 향을 4개의 선(녹차·쌀·고일·채소) 등으로 표현했다.

보성의 대표 경관인 차밭에서 인공한 패턴을 녹색과 흰색만을 사용해 맑고 깨끗한 보성의 자연과 품격 있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시티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한국차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시티투어 출발...버스 타고 보성 명소 한바퀴

지단달 24일 첫 운행

12월 18일까지 토·일요일

보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적지를 편안하게 둘러 볼 수 있는 '보성 시티투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단달 24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 유적지를 알리기 위한 '보성시티투어'를 첫 운행했으며, 40여명의 관광객이 보성을 찾았다.

이번 투어는 보성명소 관광과 역사힐링 관광 테마로 2개 코스를 일정별로 버스를

타고 찾아 갈 수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동행한다.

보성명소 관광 코스는 대원사·티벳박물관, 서재필기념관, 방진관, 향토시장, 붓재, 녹차밭, 율포해수욕장을 관광하는 코스다. 역사힐링 관광 코스는 태백산맥박물관, 강골마을, 한국차박물관, 율포해수욕장, 제암산자연휴양림을 둘러보는 코스다.

운행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행하며, 광주 유스퀘어에서 오전 8시 20분 출발하고 당일 오후 7시 광주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투어 요금은 성인 1만원, 장애인·군인·

65세 이상·고교생이하 5000원이며, 입장료·점심식사·여행자보험료는 관광객이 부담한다. 입장료는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예약은 버스한바퀴 홈페이지(www.kumhoaround.com)에서 할 수 있으며, 좌석이 남아 있는 경우 탑승장소에서 현장 구입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 시티투어(062-360-8502)나 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12)로 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을 녹차의 고장으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시티투어를 통해 또 다른 참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숙박시설 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 오룡동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	전원주택 감정가 5억 4천만, 최저가 3억 7천만 진도 / 대지 347평 건물 60평	◆ 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 감정가 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남구 월산동 / 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 (충별 입찰가)
오피스텔 매매가 40억 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	상가건물 매매가 14억5천만 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 가스 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12억 7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3기 6구 / 자동 세차기 / 화순 유입대로변		
◆ 고급팬션 및 주택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식당 성업중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1114 김 주 성**